

형지엘리트, 제18기 3분기 경영실적 발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4억 원... 전년동기비 125.1% ↑

- ▶ 당기순손실 큰 폭 축소... 내실 경영 강화 및 형지에스콰이아 개선세 지속
- ▶ 중국 교복 사업,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 통해 외형·내실 모두 성장할 것

<2019-05-16> 6월 결산법인 형지엘리트가 제18기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멀티 패션 기업 (주)형지엘리트(093240)는 연결 기준 제18기 3분기 누적(2018.07.01~2019.03.31) 실적
이 매출액 1,209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 당기순손실 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
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5.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25.1% 증가하고 당기순손실도 43
억 원에서 20억 원대로 크게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효율적 영업 정책 등 내실 강화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부연했다. 자회
사 형지에스콰이아의 손실이 연결 실적에 반영되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형지에스콰이아의 실적
개선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형지에스콰이아는 2015년 6월 인수된 후 제15기(2015.07.01~2016.06.30) 영업이익 -98억 원을
기록했으나 제17기(2017.07.01~2018.06.30) -46억 원으로 적자폭을 줄였다. ▲생산공장 외주화 ▲브랜
드별 효율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온라인·홈쇼핑 중심의 매출 확대가 이뤄
지며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안정적 수익 기반인 교복 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자회사 형지에스콰이아
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어 실질적인 흑자 전환이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지엘리트는 '미래 성장 엔진' 중국 교복 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연초 영업 및 구매/생산 부문에 전문가를 영입했고, 지난 4월엔 중국의 거장 장지중(张
纪中) 감독이 연출한 심천 패션쇼 VK바이남따슈(VK百男大秀, 송인정장위주)의 시아오치스(小騎士, 아동
복 파트) 부문에 참가하며 높은 홍보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중국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다각화해 외형과 내실 모두 성장하겠다는 의지다.